철강업계, 中 경기부양책 주목 수요회복 등 업황 개선 기대감

업계, 3분기 실적 전망 부정적
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나서
"변동성 고려한 전략 중요해져"

국내 철강업계가 지속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시장 평균 전망치)는 매출액 5조8069억원, 영업이익 10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7.58%, 53% 감소한 수치다.

현대제철의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는 봉형강 부문 수요 부진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지목된다. 또한 당진 전기로의 감산 지속으로 고정비가 증가한 점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기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보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전망치도 다소 부정적이다.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8조 6000억원, 영업이익 8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4%, 31.9% 줄었다. 사업 부진 원인으로는 포스코홀딩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철강 부문의 가격 하락과 이차전지 관련 사업 부진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철강사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역대급 엔저로 고역을 치뤘다. 업계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섰으나, 중국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이 늘어 수요 자체가 저조해졌다.

다만 3분기를 변곡점으로 삼아 점차 시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중국 철강 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건설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업황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연말까지 우량 부동산 개발 기업에 총 4조위안(약 76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 하려는 조치다.

중국 내 건설업 등 산업 부양으로 철강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 중국산 해외 수출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철근과 H형강 등 봉형강 제품도 국내 건설경기 회복세에 따라 수요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한국산 철강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국내 철강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 내에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두산에너빌리티, 카자흐스탄 산업발전 협력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MOU 체결

지난 23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왼쪽부터) 카자흐스탄 알마싸담 삿칼리에브 에너지부 장관과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마케팅부문장이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카자흐스탄 알마싸담 삿칼리에브(Almassadam Satkaliyev) 에너지부 장관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및 현대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방문단 일행은 한국형 원전 APR1400 주기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공장, 380MW(메가와트)급 발전용 초대형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터빈 공장, 암모니아혼소 실증 공장 등을 찾아 두산에너빌리티의 생산 역량을 살펴봤다.

카자흐스탄은 화석연료 발전 설비용량이 전체의 약 80%에 육박한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개보수 및 현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울켄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해 원전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자의 71.12%가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마케팅부문장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원자력, SMR, 가스터빈 등 무탄소 발전기술은 카자흐스탄 전력 계획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해 카자흐스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23년 카자흐스탄 남부 심켄트 지역에 1조 1500억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에 삼룩카즈나, 삼룩에너지 등 카자흐스트탄 금융, 에너지 국영 기업들과 카자흐스탄 발전 산업 공동 협력에 관한 협력 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설비 공급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MOU)를 체결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SK, 에너지 등 사장단 인사… '기술·현장' 방점

김종화, 최안섭, 이상민 신규 선임
전원 이공계 출신… O/I 성과 집중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최안섭
SK지오센트릭 사장

이상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

SK이노베이션이 기술과 현장을 중심으로 2025년 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3개 SK이노베이션 계열사는 당면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Tech. 역량을 갖춘 기술형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사장들은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기술과 현장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SK이노베이션 계열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O/I(Operation Improvement)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설명했다.

SK에너지 사장으로 선임된 김종화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정유, 화학 사업을 두루 경험한 울산 CLX내 최고의 생산 전문가다. 최근 유가 변동과 같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공정 운영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안섭 신임 SK지오센트릭 사장은 R&D(연구·개발) 연구원 출신으로, SK지오센트릭 최적운영실장과 전략본부장 등 SK지오센트릭의 주요 보직을 다 거쳤던 만큼 풍부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SK지오센트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상민 신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 또한 R&D 연구원 출신으로, SK㈜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첨단 기술 개발을 거쳐 SK엔무브 그린성장사업실장 등 성장사업에서 역량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냉난방공조(HVAC)와 전기차용 윤활유(e-Fluids) 같은 주요 신사업을 단시간내 안착시키는 등 SK엔무브의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차현정 기자

"통합 라이브 지도 서비스로 자율주행 완성"

히어테크놀로지스 간담회
"지도가 차량을 똑똑하게 만들 것"

미디어 간담회에서 히어 테크놀로지스 램코 티머 부사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맵 데이터 전문 기업의 사업 영역이 내비게이션에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서비스는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라이브 맵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글로벌 맵 데이터 기업 '히어 테크놀로지스'와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다. 히어 테크놀로지스는 아우디·BMW·다임러 등 독일 완성차(OEM) 3사가 소유한 회사다. 4000만개 이상의 지도 데이터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거의 모든 상용차 업체에 지도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히어 테크놀로지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SDV) 시대 차량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가공해 전 세계 모든 운전자와 자동차 회사에 하나의 통합된 라이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라이브 지도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차량은 센서가 주변 상황을 감지해 움직이지만, 센서가 감지할 수 없는 더 넓은 범위를 라이브 지도 서비스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 흐름과 같은 실시간 정보가 자율주행 차량에 전달되면, 자율주행 차량은 최적의 경로를 구상해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다.

히어 테크놀로지스는 자사의 기술력을 자율주행과 접목하기 위해 독일 등 일부 지역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렘코 티머 부사장은 "시속 95km까지 아이즈프리·핸즈프리 운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시각 정보나 조작 개입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히어 테크놀로지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지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도 제한·교통법규 등의 정보도 갖추고 있어 자율주행 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설계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렘코 티머 부사장은 "공공데이터, 항공 데이터, 차량카메라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취합하고 통합해 실시간에 준하는 속도로 지도를 업데이트하겠다"며 "SDV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차량 센서의 정보를 다시 지도 구성에 활용하고, 지도가 다시 차량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ds@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순항… EPC 공정률 40% 도달

〈설계, 구매, 공사〉

2026년 6월 기계적 준공 목표

에쓰오일이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여 샤힌프로젝트 진행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9조 2580억 원을 투자하는 샤힌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대규모 장치와 설비를 설치하는 EPC (설계, 구매, 건설) 공사가 본격화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의 전체 EPC 공정 진행률은 40%에 도달해 오는 2026년 6월 기계적 준공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부지 정지 공사 작업이 마무리됐고, 초대형 크래킹 히터 총 10기 중 벌써 8기가 자리를 잡았다.

크래킹 히터는 스팀 크래커의 핵심 장치로, 나프타·LPG 등의 원료를 열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전체 모듈 설치가 완료되면 높이 67m에 달하는 10개의 설비들이 웅장한 위용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